

[사회]



“평화 깃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과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25일 오전 성탄미사가 열린 천주교 광주대교구 임동성당에서 신자들이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최창무 대주교는 이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않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는 겸손한 마음을 간직하자”는 내용의 성탄 메시지를 전달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 경쟁률 3.26 대 1

정시모집 원서 마감 마지막날 42% 몰려 ‘눈치 작전’ 치열

수능 복수정답 파문 학과별 경쟁률 공개 안해 광주교대 1.81 대 1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

25일 마감된 전남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이 3.26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 물리 II 과목의 복수정답이 인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28일까지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이날 원서접수 마감에도 불구하고 과별 경쟁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남대의 경우 총 3천121명 모집에 1만164명이 지원해 지난해 3.1대1보다 다소 높은 3.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캠퍼스는 3.25대1(2천509명 모집에 8천148명 지원), 여수캠퍼스는 3.29대1(612명 모집에 2천16명 지원)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특히 지난해 2.13대1이던 여수캠퍼스의 경쟁률이 수직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군별로 살펴보면, 광주캠퍼스 가군

의 평균 경쟁률이 3.2대1, 나군은 3.36대1이었으며, 여수캠퍼스는 가군 3.1대1, 나군이 3.73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올해는 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만큼 예상했던 대로 막판 눈치작전이 뚜렷했으며, 의예과·수의예과·약학부·사범대학 등 전통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다소 하락해 안전지원 경향이 었보았다”고 설명했다. 접수 마감일 하루 동안 전체 지원자의 42%인 4천236명이 몰려 눈치작전이 치열했음을 방증했다.

이날 고려대, 연세대 등 가군, 나군, 가·나군 전형을 실시한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이 원서접수를 마감했으나 일부 대학만이 인문계열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했다.

고려대는 가군 일반전형의 인문계

열 중 보건행정학과가 7.6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식품자원경제학과 6.44대1, 교육학과 5.23대1 등 순이었다.

지난 24일 마감한 광주교대의 경우 476명 모집에 863명이 지원, 지난해 2.08대1 보다 낮아진 1.8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85명을 뽑는 일반전형에는 687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78대1이었으며, 특별전형의 농어촌 학생 전형이 3.61대1, 소년소녀가장 또는 위타가정 아동세대 전형이 2.6대1이었다.

한편 물리II 복수정답 인정으로 성적표를 재배부받은 수험생들의 원서접수 기간이 28일까지 연장돼 각 대학의 자연계열 원서접수 결과 집계는 늦춰지게 됐다.

또 교육부가 자연계열의 원서접수가 마감될 때까지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함에 따라 대학들은 군별 및 캠퍼스별 평균 경쟁률만 발표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대혼란...대입 전형 유의할 점

등급조정 합격시 31일까지 등록금 예치 수시 2 추가 합격땐 정시 원서 취소해야

교육부는 25일 수능 물리II 11번 문항의 복수정답 처리에 따른 대입 전형상의 후속 조치를 대학에 협조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수시 2학기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탈락한 학생이 물리II 과목의 조정된 등급으로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추가 선발로 인해 모집인원이 초과되더라도 2008학년도 정시모집 및 2009학년도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성적으로 수시 2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등급 조정으로 다른 대학 수시 2학기 모집에 추가로 합격해 기존 합격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 대학은 그 인원만큼 정시 모집 또는 추가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등급 조정으로 수시 2학기 모집에 추가로 합격한 학생은 12월 31일까지 등록금 대학에 등록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격 대학이 복수인 학생은 한 대학을 선택해 등록 예치금을 납부하고 다른 대학에는 등록 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급 조정으로 수시 2학기 모집에 추가로 합격한 학생은 정시 원서 접수를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복수 지원 규정에 위반돼 사후 합격이 취소되므로 수험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정시 모집 원서 접수 물리II 과목 등급이 조정된 학생에 한해 12월 28일까지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등급이 조정된 학생 중 기존 성적으로 이미 정시모집 원서를 제출한 학생은 기 제출한 원서의 접수를 취소하고 새로운 성적에 따라 원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침 안개 조심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4~15℃
주요도시	맑음	3~13℃
여수	맑음	6~13℃
안동	맑음	2~14℃
대구	맑음	-1~15℃
부산	맑음	-1~15℃
인천	맑음	-1~15℃
서울	맑음	-1~15℃
대전	맑음	4~13℃
충주	맑음	3~14℃
울릉도	맑음	0~13℃
독도	맑음	3~14℃
제주	맑음	1~13℃
목포	맑음	-2~13℃
홍성도	맑음	7~11℃

12월 26일 (음 11월 17일) ◇전국날씨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3.0m
목포 밀물 < 03:18 썰물 < 08:38
여수 밀물 < 10:47 썰물 < 04:07

▲해돋이 07:39 ▲해질 17:26 ▲달돋이 19:51 ▲달질 09:3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1/1(화)
날씨						
최저/최고	4/12	4/9	3/5	-5/0	-6/1	-5/3

“영동한 계좌로 이체 은행 반환 책임 없어” 호주제 폐지·저작권 등 교과서 보완 자료 배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영동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B사가 “계좌번호를 착각해 H사에 보낸 물품대금 1천755만원을 S사에 보냈으니 은행이 돌려달라”며 낸 오입금(誤入金) 반환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반환을 명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사는 2006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 1천755만원을 H사에 이체하려 했으나 직인 실수로 예전 거래처인 S사 계좌에 입금했다. B사는 다음날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가족제도 변경, 저작권, 기후변화 등 내용을 담은 초·중·고교 교과서 보완 자료가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교육부는 25일 기존 교과서 내용에 보강할 9개 주제와 설명 자료를 담은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마련, 전국 초·중·고교 및 시도교육청에 26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보완 자료는 국가·사회의 변화상을 교육 내용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과학 교육 및 시사 교육을 수업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완 내용에 따르면 ‘2008년 달라지는 가족제도’에서는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 법률의 사회적 의의와 민법상의 가족제도 변화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연합뉴스

2009 해년도 중입학교 (유치원·초·중·고교·보건)

교사임용시험?

2009학년도 임용시험 30일간 전원으로 진행됩니다.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무분류계열
-----	------	------	-------

www.nemypoint.com

529-0090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

시제·제시상을 차려드립니다

당우한과

www.danguhan.com